

사회

광주·전남 선거사범 수사 속도낸다

검경, 국회의원 당선자 5명 입건... 관련자 포함뎀 더 늘듯

동구, 나주·화순 등 조사 결과 촉각

제19대 총선이 끝나고 검찰과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12일 현재 국회의원 출마자 중 입건된 당선자는 광주 4명, 전남 1명 등 모두 5명이다. 또 배우자·직계존비속·회계책임자·사무장 등 당선 무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제264조)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제265조)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선거에 앞서 전국 공안부장 회의를 열고 50만원 이상 금품 제공이나 불법 흑색선전 문자메시지 500건 이상 발송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강력한 처벌 방침을 세웠다. 또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검찰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도 허위사실 유포나 금품제공자 등에 대한 강화된 양형기준을 이번 선거부터 적용하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1·2심 재판을 각각 두 달 안에 끝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선거사범

공소사효가 끝나는 오는 10월11일까지는 당선자들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처지다.

광주지검의 경우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91명(18대 85명 : 구속 3명, 불구속 82명). 검찰은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 기소,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선거사범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전직 동장의 투신 자살사건으로 불거진 광주시 동구 불법선거와

관련, 유태평 동구청장과 해당 구의원 등에 대한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입건된 동구 국회의원 박주선 당선자도 검찰 소환조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와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맞붙은 나주·화순 선거구도 ▲초등학교 자모회원 식사 제공 ▲불법선거사무실 운영 등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12일 현재까지 19건 44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해 그 중 17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1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

며, 이 중 당선 무효에 해당할 수 있는 기부행위는 4건(4명)이다.

전남지방경찰청도 68건 113명을 불잡아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98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후보 비방 등 네거티브사범 22건(30명), 금품사범 9건(12명) 등의 혐의점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을 우선 수사하고 나머지 사안도 선거사범 공소사효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선거 벽보·현수막 철거 12일 광주시 북구 삼각동사무소 직원들이 4·11 총선에 쓰였던 후보들의 벽보와 투표 안내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장만채 도교육감 검찰 조사 받아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12일 오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출두해 오후 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재직 당시 교직원 성과 상여금 17억여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총장 대외활동비로 수천만 원을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해 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순천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전남도교육감 집무실에서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한 바 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순천지청 앞에서 "무한 경쟁 시대에 총장을 맡긴 것은 세계화를 시키기 위한 역할을 부여한 것인데, 교과부에서 조사할 때 화가 많이 났다"며 "조직을 위해 총장으로 서 역할을 했을 뿐이며 검찰에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장 도교육감은 피내사자 신분이며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총인비리 '녹취파일'로 불똥 튀나

檢, 참여자치 관계자 불러 적법성 여부 수사

총인저감시설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수수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의 제작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광주 참여자치21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이번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던 공무원과 업자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의 적법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녹취파일 작성자에 대해서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합구한 것

로 전해졌다.

이 녹취파일에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광주시 남구 봉선동 한 식당에서 사업장에 선정된 대립산업 관계자와 광주시 서기관급 공무원 반모(58)씨, 또 다른 사업자 등이 나온 대화가 담겨있다. 반씨가 이날 식당에서 발인한 내용은 1시간30여 분 분량으로 녹취됐으며 참여자치21은 이 녹취록을 제보자로부터 건네받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기본급은 그대로 두고 상여금, 수당 등을 올려 임금을 지급해온 기존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국 대법관)는 12일 대구 시내버스회사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구모(39)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기 상여금은 근속수당과 달리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재직기간에 비례해 금액을 확정해 지급한 것이라 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근속수당은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이라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

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이러 "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 '월 평균 연장·야간 근로시간 수'를 모두 합한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씨 등은 사측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 지급하자 "근속수당과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속해 다른 수당을 산정할 때 이를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근속수당과 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2심은 근속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범위를 축소한 바 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통상임금=노동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그동안 상여금과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나원침 (8544) 김종두



진경락 전 과장 지명수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2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지만 체포에 실패했다.

따라서 검찰은 지명수배를 내리고 진 전 과장의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만취 60대, 할머니 유인해 성폭행

○만취한 60대 남성이 취기를 참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폐지를 줘던 70대 노인을 수차례 폭행한 뒤 성폭행했다가 경찰서행.

○12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한모(65)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목포시 산정동 모 여인숙 자신의 숙소에서 A(여·77)씨를 때린 뒤 성폭행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한씨는 밤낮으로 폐지를 모아 생계를 잇고 있는 독거노인 A씨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며 숙소로 유인해 몸을 짓질했다"고 설명했다.

/서부취재본부=고구석기자 yousou@

전기 쇼크 '염기 자살'

신변 비관 30대... 사망 4~5일후 발견

생활고 등 신변을 비관한 30대 남성이 평소 자신이 익히고 있던 전기 기술로 염기적인 자살을 선택했다.

지난 11일 광주시 북구의 한 주택 1층에서 미혼상태에서 월세로 어렵사리 지내온 A(38)씨가 몸에 전선을 감고 전류를 흐르게 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220V 전류를 몸으로 통하게 해 전기쇼크사로 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고압전류가 심장과 뇌의 중앙 부위에 전달되면 수축과 마비현상이 발생하고, 뇌의 호흡중추가 손상돼

호흡정지로 사망한다.

시신은 4~5일 정도가 지난 상태였으며, 인가척이 없어 확인에 나선 집주인 윤모(68)씨가 발견했다. A씨의 시신은 검게 그을리고 부패가 진행되기 시작한 상태였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최종학력이 중졸이었지만 A씨는 손재주가 남달라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걸 좋아했고, 주위의 고장난 가전제품도 척척 수리해 냈다. 타고난 재능으로 중고 가전제품수리 관련 일자리를 얻었지만 그의 생활은 녹록치 않았다. 일거리가 중분치 않아

18만원의 월세도 8달째 못 내는 처지가 됐다.

더욱이 지난해 병원을 찾았다가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A씨는 직장을 그만두게 돼 생활은 더욱 곤궁해 졌다.

경찰은 "A씨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했으며 평소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는 유가족들의 진술로 미뤄 A씨가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경찰청지정 운전면허 시험장

"공원같이 아늑한 학원전경"

트레일러, 대형

www.yjcdive.co.kr

문자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 깨끗한 환경 ▶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운영
-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예정
- 교재무료 배부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 셔틀버스 운행

1,2종 보통, 2종 소형(오토바이)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치: 신가동 사거리 분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